

# 일상이 작동하는 마을 기반 문화정책

2014. 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문화TFT”

-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대표)
- 김영현(유알아트대표)
- 김소연(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획조정팀장)

I. 연구의 개요 .....	5
1. 취지 및 의의 .....	5
2. 목적 및 탐구과제 .....	5
3. 연구방법 및 일정 .....	6
1) 의제 발굴 과정 .....	6
2) 소셜 픽션(Social fiction) 방식의 과제 도출 .....	6
3) 전문가 심층논의 .....	8
4. 마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 .....	8
II. 문화에 대한 이해 .....	9
1. 문화에 대한 정의 .....	9
2. 문화의 속성 .....	9
III. 우리 사회의 문화적 현황 .....	10
1. 우리 사회의 현황 .....	10
1) 서울, 그 삶의 여건 .....	10
2) 서울시민의 삶 .....	12
3) 서울에서의 공동체 .....	14
2. 2030년 예상되는 미래 전망 .....	15
1) 2030년 미래의 환경 .....	15
2) 마을의 미래 환경 .....	17
3. 마을의 주요한 의제와 현안 .....	18
1) 마을의 지배적인 의제 .....	18
2) 마을의 내밀한 현안 .....	19
IV. 원리로서의 마을문화정책 .....	20
1. 정책방향과 비전 .....	20
1) 접근방식의 설계 .....	20
2) 원리로서의 문화접근하기 .....	21
3) 미래비전 .....	22
4) 성과지표 .....	22
2.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22
1)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	22
2) 주요 추진사업 .....	23
V.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 .....	26
1. 정책방향 및 비전 .....	26
1) 접근방식의 설계 .....	26
2) 토대를 위한 문화접근하기 .....	26
3) 미래비전 .....	27
4) 성과지표 .....	28
2.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29
1)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	29
2) 주요 추진사업 .....	29
VI. 의제 발굴 과정 사진 모임 .....	32



# I. 연구의 개요

## 1. 취지 및 의의

- 서울문화플랜2030의 토대를 일상으로부터 인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됨. 하나는 토대에 기반 한 문화적 접근이 일상성을 담보하면서도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공세로부터 유연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와 산업 중심의 서울 정책에서 시민과 공동체가 마침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점임.
- 그러나 상당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문화는 삶의 자원(과거)이며, 내용(현재)이고 마침내 결과(미래)인 삶의 총체이지만, 우리의 오랜 분절적인 사고와 감각으로 인해 총체적인 읽기 능력이 부실하다는 점은 접근을 어렵게 함.
- 이 보고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낯섦에도 불구하고, 영역의 합으로서의 문화정책이 아니라, 영역을 아우르는 “원리로서의 문화정책”으로 접근하고자 상상한 것임. 아울러, 일상성을 촉진하는 공기(환경)와 틀(시스템) 그리고 밀간(장치)과의 관계로 환원하여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재접근하고자 한 보고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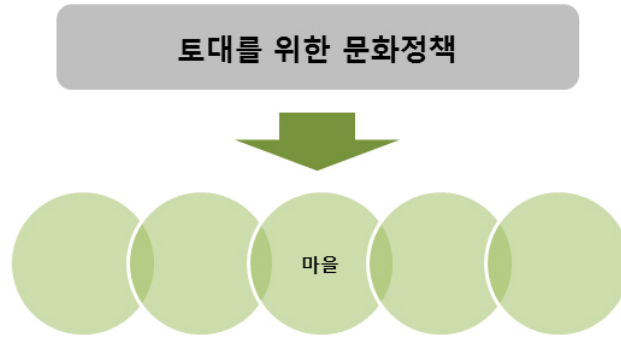
## 2. 목적 및 탐구과제

- 마을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로서의 문화 정책 도출



(그림) 원리로서의 문화정책

■ 마을의 삶의 토대를 위한 마을문화정책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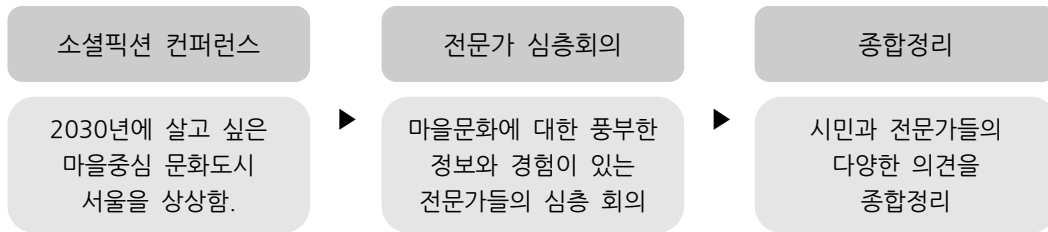


(그림)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

### 3. 연구방법 및 일정

#### 1) 의제 발굴 과정

<표> 의제 발굴 과정



#### 2) 소셜 픽션(Social fiction) 방식의 과제 도출

<표> 진행과정과 내용

<p>추진구조 확정 7.1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문화” 의제 관련 지난 논의 공유(2012~)   이창환</li> <li>▶ &lt;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gt; 추진 프로세스 공유   서진아</li> <li>▶ 소셜 픽션 알아보기   김산</li> <li>▶ 의제 발굴 TFT 중 &lt;마을&gt; 섹터 논의 추진 구조(안) 마련   김윤환(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대표) 유다원(마을예술창작소 모기동문화발전소) 이주훈(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신지예(이글루 망원) 성낙경(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 사랑방)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김산(소셜픽션 랩) 서진아, 강명지, 김소연(마을센터 기획조정팀장)</li> </ul>
--------------------------------	---

개념정리  
7.22(화)

- ▶ 마을/문화/서울 개념을 위한 마중물 발제 | 최혜자
- ▶ 소셜 픽션 컨퍼런스 초대자 기획 | 전체토론

의제  
키워드정리  
7.28(월)

- ▶ 15개 마을문화 의제 키워드 정리  
: 아동,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어르신 | 남성 | 여성 | 소수자  
: 마을공간 | 예술 | 안전 | 경제 | 주거 | 소통 | 경제 | 육아교육

행사준비  
7.29(화)

- ▶ 소셜 픽션 컨퍼런스 진행 관련 세부 점검
- ▶ 키워드별 퍼실리테이터 확정 및 역할에 대한 이해

소셜 픽션  
컨퍼런스  
8.7(목)

- ▶ 행사명 : 2030 마을 중심 문화도시 서울을 상상하라
- ▶ 참가자 : 총 117명  
시민참여자 81명(사전신청사 105명), 퍼실리테이터 15명,  
속기사 15명, 사회자 1명,  
기타 5명(영상촬영, 웹진기자, 조경신문, 본 TF팀 연구원)
- ▶ 행사장소 : 크리에이티브랩(녹번동 5 위치)
- ▶ 테이블별 주요 프로그램
  - ① 테이블 주제 정의하기
  - ② 정의된 주제가 실현되는 서울의 변화 상상
  - ③ 변화된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상상
  - ④ 지금 해야 할 일



전문가  
워크숍  
8.11(월)

- ▶ 행사소감 나눔 + 퍼실리테이터 정리본 공유
- ▶ 참가자 : TF팀 + 테이블 참여 퍼실리테이터
- ▶ 의제융합을 위한 키워드 재구성  
: 인식의 전환, 정책개선, (공유)공간, 교육, 소통, 안전, 마을경제,  
마을생태, 마을문화백수, 문화활동

방향 재논의  
9.16(화)

- ▶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재논의
- ▶ 참가자 : 유창복(마을센터장), 강명지(경영기획실장), 김소연(기획조정팀장),  
이지연(기획조정팀), 라도삼(서울연구원), 이창환((사)마을 이사)
- ▶ 논의결과 : 마을센터 자체에서 마을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3) 전문가 심층논의

#### ■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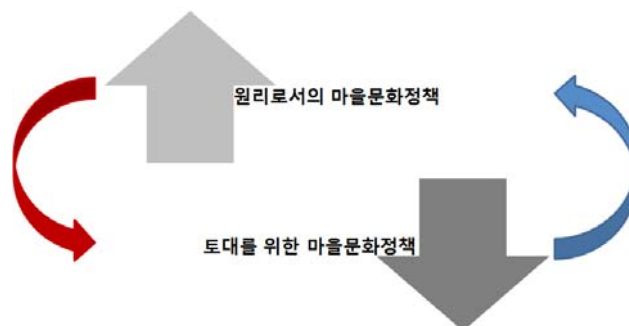
구분	참여자	역할
전문가 TFT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대표) 김영현(유알아트대표) 김소연(마을센터 기획조정팀장)	마을의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체계화 및 총괄 정리
자문위원	김용호(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권순석(문화마케팅바라대표)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유다원(마을예술창작소 모기동문화발전소)	TFT 논의 결과 자문

#### ■ 논의 일정

과정	9/3주	9/4주	10/1주	10/2주	10/3주	10/4주	11/1주	12/1주	12/4주
사전미팅	0								
대면논의		1차	2차/3차	4차	5차	6차/7차	최종안		
자문회의								0	
인쇄									0

## 4. 마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

- 마을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한 마을 사업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진
- 원리로서의 마을문화정책의 결과와 토대를 위한 마을문화정책의 결과가 선순환 되는 정책적 효과 극대화



(그림) 마을문화정책의 생태계적 순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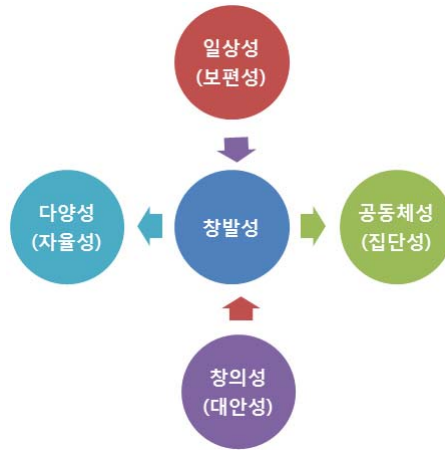
## II. 문화에 대한 이해

### 1. 문화에 대한 정의

- 전통적으로 문화는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및 기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 총체”라고 규정됨.(E.B. 타일러,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
- 인간사회 삶의 총체라는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 삶을 위한 자원이며, 삶의 내용이며,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나 문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문화가 매우 다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일치.

### 2. 문화의 속성

- 인간의 문화는 인간과 인간집단이 가진 사회적 속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속성을 가짐.
- 문화는 일상성(보편성)과 공동체성(집단성) 창의성(대안성) 다양성(자율성)을 가지며, 이러한 성질은 평면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에너지를 발산함.
- 이러한 에너지는 문화의 또 다른 속성인 창발성(Emergence)에 의해 발현되는데, 창발성은 새로운 질서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상호작용의 원천으로 문화가 변화하는 동력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의미.
- 생산의 증대와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된 현대사회에서도 문화가 가진 본질적 속성은 다르지 않음. 또한, 전쟁, 문화충돌, 의도적 문화 조작 등으로 인해 문화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일정 사회의 문화가 변화할 수 있지만, 문화 그 자체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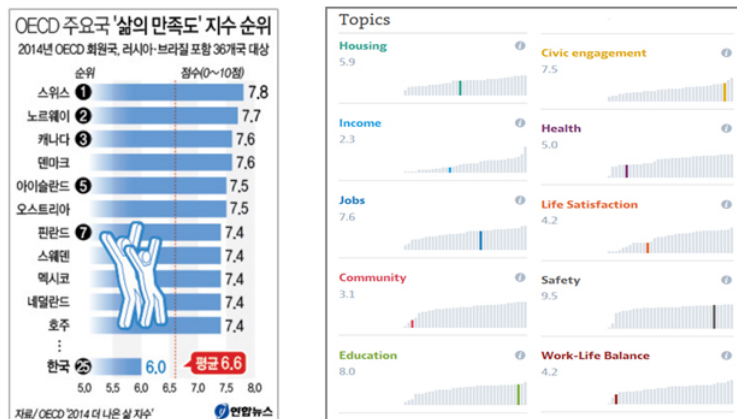
(그림) 문화의 속성

### III. 우리 사회의 문화적 현황

#### 1. 우리 사회의 현황

##### 1) 서울, 그 삶의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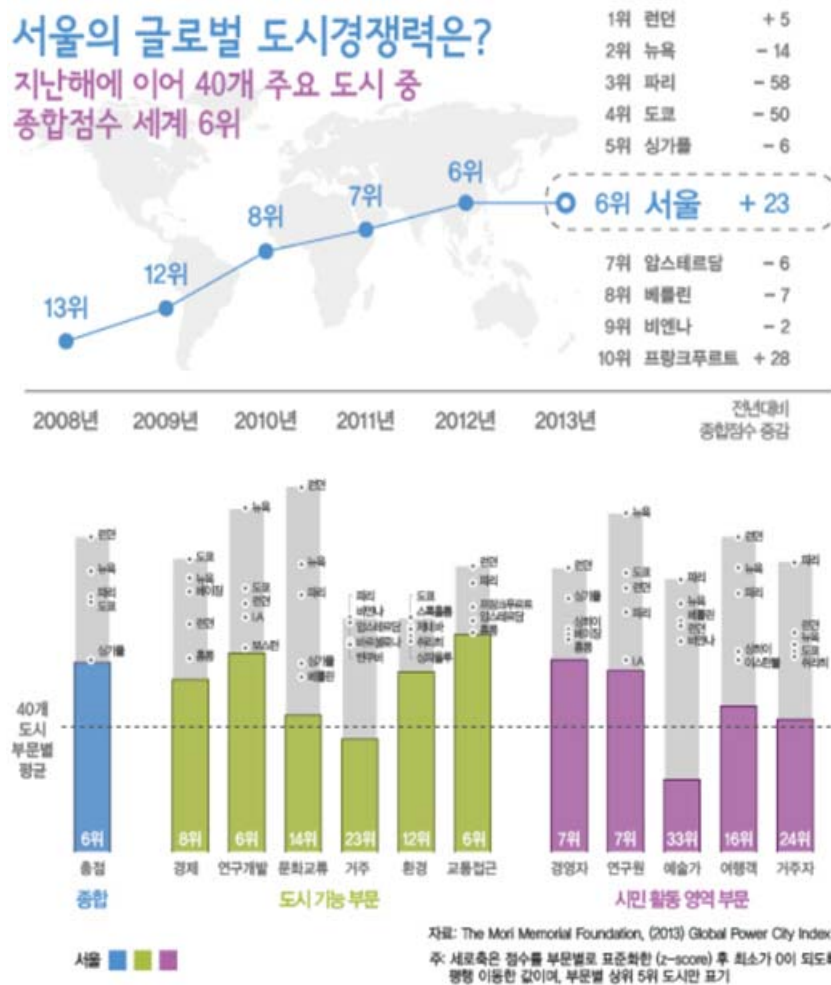
- OECD 행복지수2014(Better Life Index2014)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36개국 중에서 25위로 평가되었음. 한국은 “시민참여”, “교육”, “생활안전도”에서 높게 평가된 반면, “소득”, “공동체 활동”, “삶의 만족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음. 이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적 환경으로 서울 시민의 일상도 다르지 않음.



(그림) OECD 삶의 만족도 지수와 한국에 대한 평가 내용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508161710809>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서울의 경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IEU)이 실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The Most Liveable City in the World)평가’에서 매년 50위권을, <sup>1)</sup> 미국의 컨설팅업체 머서(Mercer)가 실시하는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Quality of Living)조사’에서는 70위권<sup>2)</sup>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조사한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의 ‘2013년 세계도시 국제 경쟁평가(GPCI)’에서 서울은 40개의 비교 대상 도시 중 6번째를 차지해 높은 경쟁력을 보여줌. 그러나 세부항목을 보면 “거주”와 “문화교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예술가”와 “일반거주자” 계층에게 있어 낮은 조건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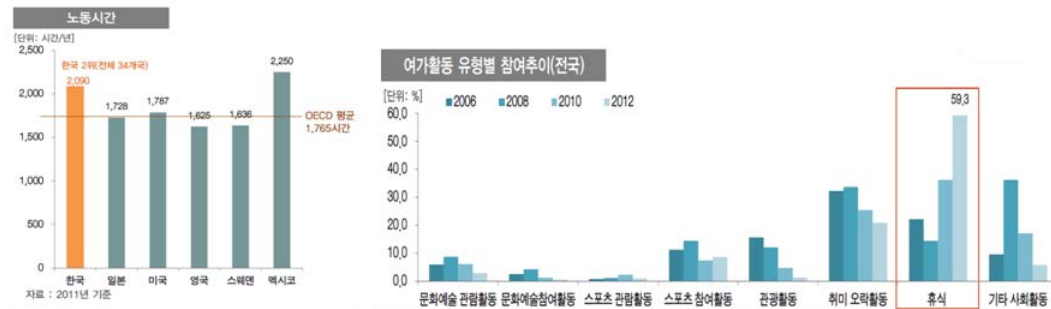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과 분야별 평가 내용

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099&idxno=474785>  
[http://www.eiu.com/public/topical\\_report.aspx?campaignid=liveability2014](http://www.eiu.com/public/topical_report.aspx?campaignid=liveability2014)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9/201402190140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9/2014021901408.html)  
<http://web.archive.org/web/20110714062247/http://www.mercer.com/surveys/quality-of-living-report>

- 상기 평가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은 환경 조성  
과 법제도 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스스로 행복을 기획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 2) 서울시민의 삶

- 급격한 산업화는 지난 40년 동안 서울의 외형을 변화시키고 서울시민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켰음. 현재 서울은 아시아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시민 여  
가 활동 역시 다양화되어 여가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그러나 외향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59.3%가  
여가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실정임. 이는 OECD 행복지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은 항목이 “소득”, “공동체 활동”, “삶의 만족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사실  
과 연관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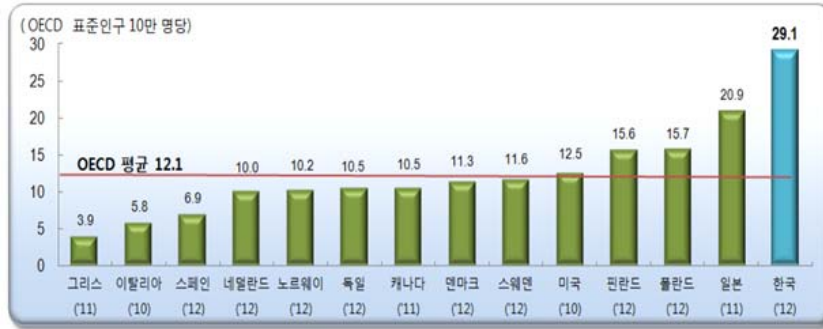


(그림) 한국의 노동시간과 한국인의 여가 구성

출처 : 라도삼 "서울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계획 및 절차" 서울연구원 2014

-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9.1%로서 이는 OECD 평균  
12.1%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임. 서울시민의 자살률 역시 23.8%<sup>3)</sup>로 OECD 평균  
의 두 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취약한 관계망의 문제가 떠오름과 동시에 서울 시민의  
견디는 삶의 단면을 알 수 있음.

3) 통계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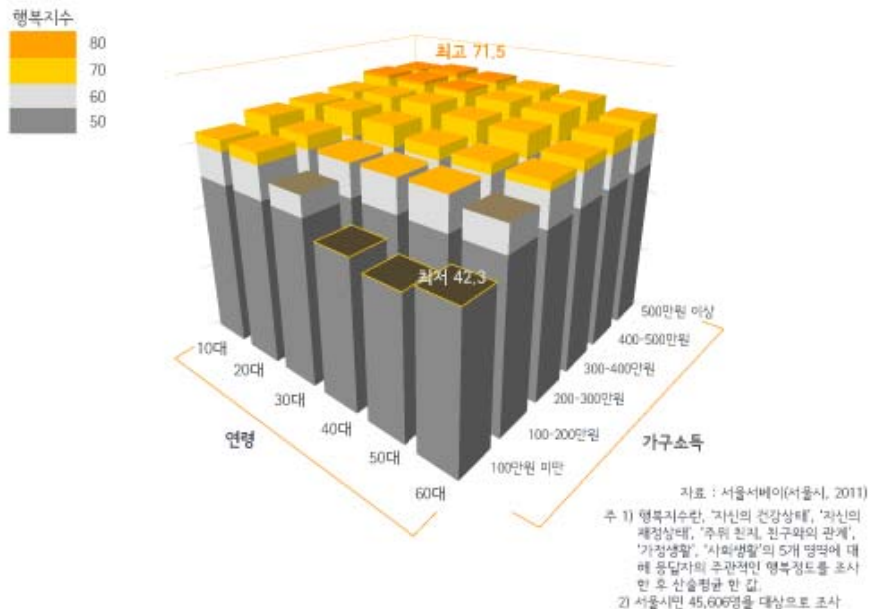


\*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14. 9. 추준),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OECD 자살률 비교

출처 : "2013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서울시가 조사한 시민들의 주관적 행복지수<sup>4)</sup>를 보면 100점 만점에 66.5점으로 크게 낮은 상태는 아님. 그러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행복하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행복지수가 59.9점으로서 크게 낮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며,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행복지수가 48.7점으로서 크게 낮음. 이는 저성장 및 양극화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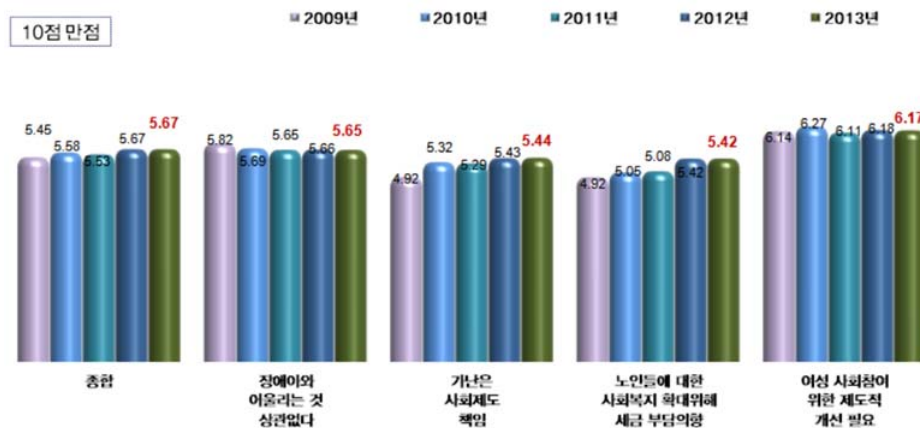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4)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78호 서울시민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얼마나 하나? <http://www.si.re.kr/node/48585>

-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며, 인지적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적 정서, 낮은 부정적 정서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할 수 있음.<sup>5)</sup> 따라서, 서울 시민의 행복은 문화적 삶의 회복과 재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 경제 성장과 재산 축적의 장에서 일상의 삶을 영유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은 서울 시민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3) 서울에서의 공동체

- 그러나 서울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실에게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감이 낮게 나옴.



(그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출처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4

- 또한 서울시민의 공동체 활동의 지표<sup>6)</sup>가 되는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면, 2013년 서울시민의 35.5%가 기부를, 20.3%가 자원봉사를 함. 이는 2012년 미국인 성인 26.5%가 자원봉사를 하고, 50.7%가 평균 25달러 이상을 기증한 미국<sup>7)</sup>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영국<sup>8)</sup> 성인의 2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 봉사를 하고, 44%가 한해 한번이상 자원 봉사를 한 수치에 비하면 낮음. 또한 인구의 47%가 한 해 동안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 15세에서 24세까지의 자원봉사자 참

5) 정명훈, 이미현, 장용석 “서울 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의 관계 분석 :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서울도시연구 제 15 권 제1호, 2014.3

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7) Volunteering and Civic Life in America [www.volunteeringinamerica.gov](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

8) NCVO:Champoioing volunteering and civil society <http://www.ncvo-vol.org.uk>

여율이 58%를 차지하는 캐나다<sup>9)</sup>와는 큰 차이를 보임.

- 서울의 공동체성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제임. 따라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서울 시민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하고 있음.



(그림) 마을공동체센터 사업

- 서울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행복을 연습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험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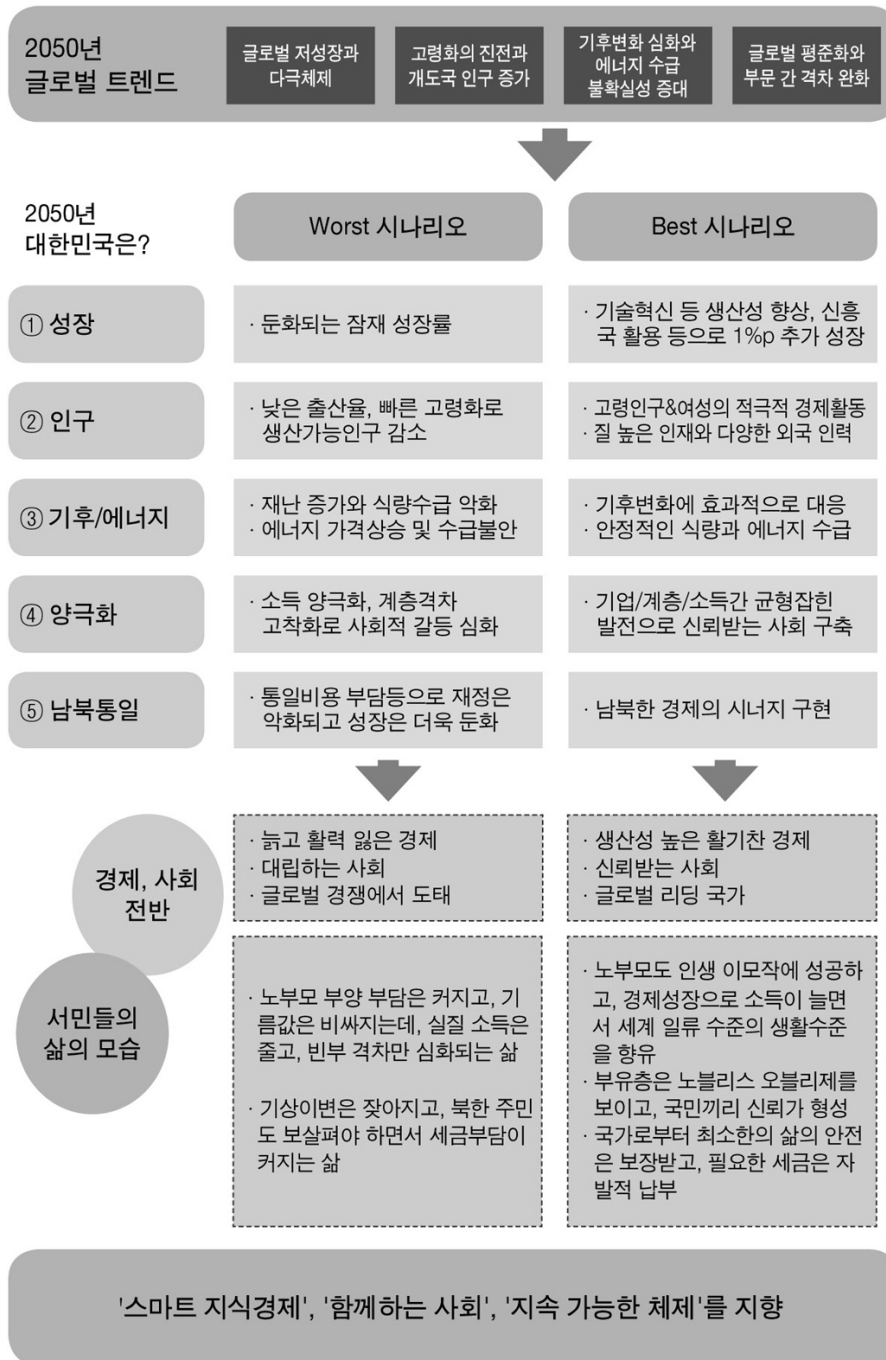
## 2. 2030년 예상되는 미래 전망

### 1) 2030년 미래의 환경

- 오늘날 미래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다원화, 정보화 사회라고 예측되고 있고, 이미 그것은 현실로 다가온 상태. 서울의 마을 문화는 그러한 조건에서 전개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위기 요소와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

9) Volunteering and Civic Life in America [www.volunteeringinamerica.gov](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는 2050의 한국사회를 선택 가능한 사회로 바라보고 현재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보고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대응으로서 노동 강도 중심에서 창의적인 산업으로 전환, 노령인구 및 여성노동과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 기후와 식량 및 에너지 문제의 효과적 대응, 노동풍토 변화,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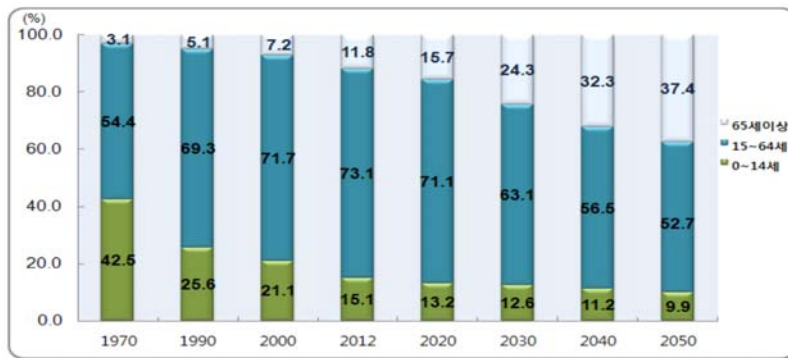
(그림) 2050년 대한민국 Best & Worst 시나리오



-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 즉,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 유연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도시에서는 문화적 역능을 갖춘 개인과 다양성을 품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임.

## 2) 마을의 미래 환경

- 저성장 시대, 마을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넘침
  - 이미 평생직장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서울 시민들은 임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구직자나 실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시대, 마을은 더욱 고령화됨.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마을은 더 적은 어린이와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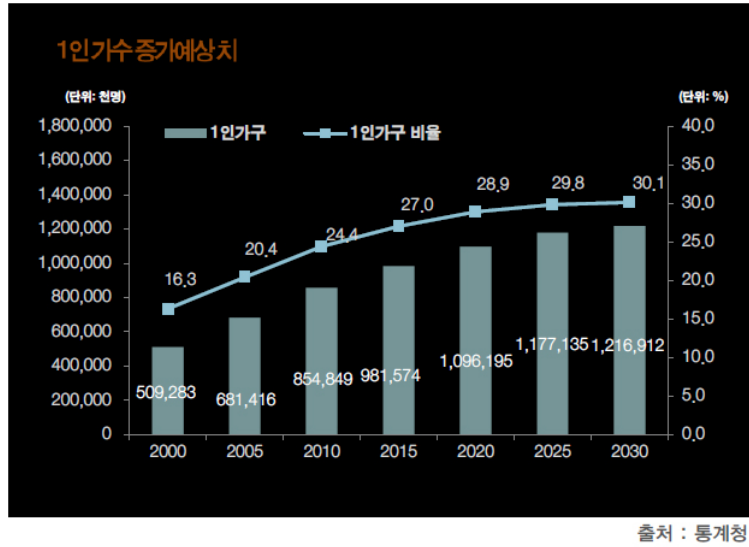


(그림) 연도별 고령인구 예측

출처 : '2012 고령자통계' 통계청

- 다원화시대, 마을에 별의 별 사람들이 넘침
  - 다원화된 사회, 마을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사회. 2027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100만 명으로 추정<sup>10)</sup>되어 서울인구의 10%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

10) 정희윤, 김상일, 이재수,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그림) 연도별 1인 가구 예측

### 3. 마을의 주요한 의제와 현안

#### 1) 마을의 지배적인 의제

##### ■ 소외되어 온 주체의 귀환

- 일상의 문화는 마을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마을에서 여성, 노인, 아동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동적 역할을 수행.
- 마을과 같은 작은 경제 단위의 중요한 매개집단인 자영업자는 일상의 파괴와 마을의 쇠락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
- 일상의 회복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아동-성년-노인’의 세대연계/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럴 때 마을은 작은 단위의 자생적인 경제구조를 회복하게 됨.

##### ■ 언어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극복

- 권위적인 행정용어는 시민을 대상화하고 시민적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로서, 행정용어의 일상 언어화는 민관협치의 시작이며, 주민 자치의 결과.
- 우리 사회에 만연된 힘의 언어(권력 용어)의 남용은 청소년이나 인터넷상의 은어 및 비속어를 양상하고 있음. 권력언어의 일상 언어화를 통해 민주적 관계성을 회복해야 함.

■ 문화적 흔적이 휘발된 일상의 재구성

- 노인의 퇴장은 비정형 문화유산의 단절을 낳았고 경험지혜는 문화적으로 유실됨.
- 또한 노인세대의 좌절은 노인세대에게 체념을 강요하고, 사회적 존재감을 갖기 위한 저항이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함.
- 삶의 지혜가 담긴 경험 지혜와 기억문화유산은 중요한 서울의 자원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재의미화가 시급함. 세대 간 경험세계의 단층을 횡단하는 일상의 창의적은 마을에 활력을 창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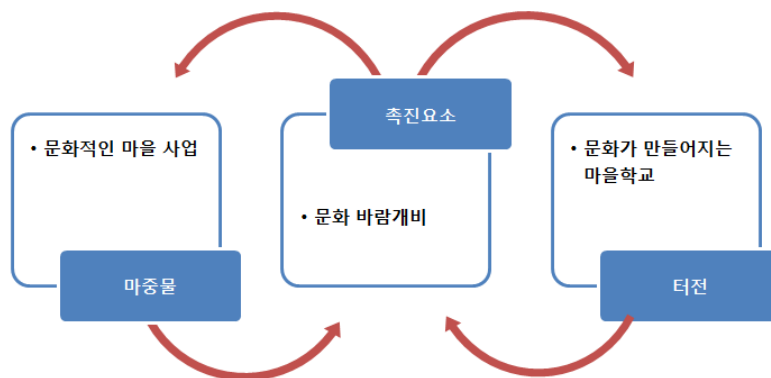
■ 일거리에 대한 시각의 재설계

-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진 현재 사회는 다양한 기회를 만나는 ‘일거리’ 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거리에 대한 시각 정착이 요구됨.
- 마을의 일거리는 근대적 공장체계에서 방출된 노동시간과 달리, 삶의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변이되며, 개인이 스스로의 노동 패턴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함.
- 새로운 노동 패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임.

■ 격리와 단절로부터 공간 공유성 회복

- 담장과 영역으로 단절된 서울의 공간이 시민적 공유성을 회복할 때 건강한 공동체의 가능성이 확장됨.
- 높은 땅값으로 소유가 분명한 대도시에서 작은 공유공간의 의미 확장은 서울에서의 일상 공간을 확장하고 공유가치를 체감하는 관계망을 만드는데 환경을 조성할 것임.

2) 마을의 내밀한 현안



(그림) 마을 문화사업의 주요 내용

- 문화적인 마을 사업 - 마중물
  - 마을에서 공동의 욕구와 동기를 만드는 욕구발굴사업
  -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설계된 사업으로 관계의 축 확대
  - 일상의 물건을 가지고 사회화하는 사소한 사업의 의미화
  
- 문화가 활성화되는 문화적 바람개비 - 촉진요소
  - 소통의 장으로서의 공론장의 일상화
  - 작은 문화공간의 심리적 확대를 통해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마을 활동가의 문화능력 강화
  - 마을 주민의 문화적 공감에 대한 자신감 고양 프로그램 강화
  
- 문화가 만들어지는 마을 학교 - 터전
  - 마을의 다양한 욕구를 집약하는 마을 학교 사업으로 설계
  - 지역의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도 활용하는 마을 사업 확대
  - 주민의 삶의 지혜를 사회화하는 프로그램 확대
  
- 마을 문화의 유기성, 순환성 - 관계망
  - 친밀한 ‘끼리끼리’에 기초하여 관계망 형성하는 활동
  - ‘끼리끼리’를 넘어서는 마을공공성의 강화하는 활동
  - 중첩되고 지속되는 하소연하는 관계의 확장
  - 마을 미디어 활동의 다양화

## IV. 원리로서의 마을문화정책

### 1. 정책방향과 비전

#### 1) 접근방식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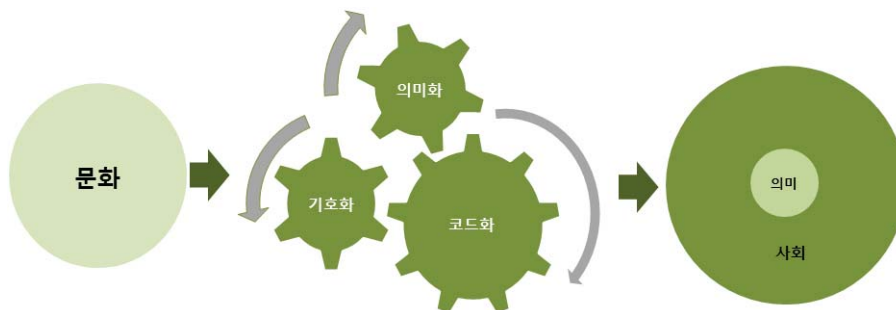
- 분절된 영역의 합으로 접근하는 문화정책은 일상의 영역 혹은 가치의 영역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기 어려움.
- 정책영역별 접근은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진흥 등 사업의 목표를 분야별로 구체화하

고 명확한 영역 이해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책의 수혜 범위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갖기 어려움.

- 사업단위별 접근 역시 문화 관련 재단 혹은 기구를 통해 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용이한 면이 있지만, 서울 시민의 일상과 유리되기 쉬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대사회의 장기성 마을문화정책은 미래 사회에 대한 문화적 상상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함.

## 2) 원리로서의 문화접근하기

- 보편성을 가진 원리로서의 문화의 공유
  - 사회에 내재된 문화적 유산은 사회 안에서 DNA로 구조화되기 마련임.
  - 서울 시민으로서의 일상과 삶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코드가 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 즉, 언어생활이나 공간 구성, 관계 맺는 방식 등에 배치되어 있음.
  - 이렇게 기호화, 이미지화 그리고 의미화 된 문화는 일일이 가르치고 학습하지 않아도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인식 속에 내재해 삶의 방식으로 외화 됨.



(그림) 일상과 문화

- 보편인권 차원으로서의 문화 공유
  - 문화는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나 현재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대적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님.
  - 또한 문화는 그 자체가 다양하며, 스스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인류의 가치 기준이나 시대정신에 조응하므로 인위적 계몽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류문화의 지혜, 현재적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 등은 문화를 수용하는 중요한 잣대이며 원리로서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범위 안에서 설계되어야 함.

### 3) 미래비전

- 삶을 기획하는 문화역량을 갖춘 서울시민
-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는 서울의 삶의 방식
- 일상적 삶에서 자기를 기획하는 서울의 문화
- 개인의 삶을 지지해주는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 문화

### 4) 성과지표

- 서울 서베이
  - 현재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서울서베이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감, 자원봉사 참여율, 문화환경만족도, 문화환경만족률, 서울시민이 공동체 의식 등 서울의 시민문화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의 속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원리로서의 문화 평가 항목

항목	조사 예시
일상성	지역신문 구독여부, 일주일에 가족 전원이 저녁식사 하는 횟수
공동체성	동네모임 참여 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여부,
창의성	갑자기 가정의 주 수입자가 실직한다면... 우울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다양성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등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식

- 집단 비교를 통한 장기 성과평가
  - 2016년 모집단과 2030년 모집단을 통해 청소년 의식변화를 탐구할 수 있음.
  - 서울 시민의 일상을 탐구하기 위해 2016년 문화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가족을 연구하고, 2030년 이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서울 시민의 삶의 변화를 탐구할 수 있음.

## 2.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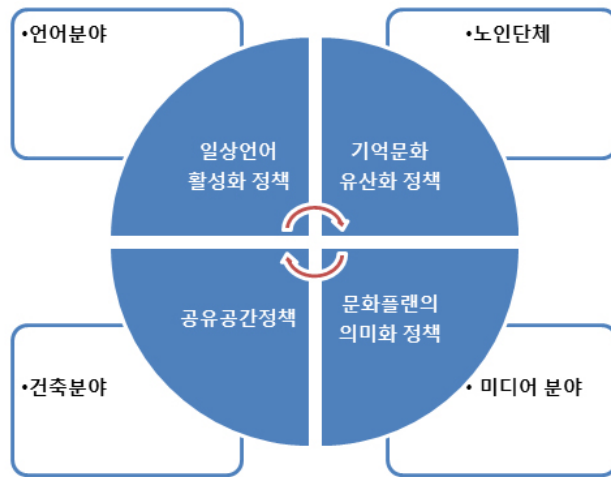
### 1)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 다수자 참여 전략

- “원리로서의 문화”에서 실행되는 모든 사업은 기술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사업이며, 활동 과정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업임.
- 따라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 다수가 즐기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 또한 결과의 의미화를 통해 참여의 자부심과 경험이 자기화 과정으로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함.

■ 사회집단과의 파트너십 전략

- “원리로서의 문화정책”은 이념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계층적 이해를 넘어 진행되어야 함.



(그림) 사회집단과 파트너십

■ 공론장의 미세화 전략

- 서울 시민의 행복과 문화적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다양한 공론장은 필수적인 요소임.
- 문화정책의 각 영역과 사업 단위에서 “원리로서의 문화”가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와 내용이 공유되고 논의되는 것이 중요.

2) 주요 추진사업



(그림) 원리로서의 문화정책 추진사업

## 과제1. 일상 언어 활성화사업

- 행정용어의 일상 용어화
  - 행정용어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상용어로 바꾸는 사업
  - 예) 시민참여“말”재판제도
- 우리말살이 캠페인
  - 소비자의 문해(Literacy)능력을 교란하는 상업주의적 언어환경을 바꾸는 사업
  - 예) 청소년 대상 좋은 간판 인증단 제도
- 편견과 차별 바꾸는 이름 만들기
  - 일거리의 편견 바꾸는 직종명, 직업명 만들기
  - 예) 폐지수거-재생지기/ 재활용센터-재료업
  - 행정단위 마을에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로 살아가기
  - 예) “예쁜 마을현판 만들기”

## 과제2. 기억문화 유산화 사업

- 기억문화자원 사업
  - 서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 기록하는 사업
  - 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년 참여 사업
- 기억콘텐츠 활용 커뮤니티 아트
  - 기억문화자원 (구술, 사진, 영상, 책자, 편지, 신문, 기타 박물 등)을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동체 문화활동
  - 예) 마을아카이브, 마을박물관
  - 마을이나 거리, 추억의 장소 등에서 과거와 현재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사업
  - 예) 기억축제
- 삶의 지혜학교 사업
  - 기억문화자원을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경험지혜를 공유하는 사업
  - 예) 기억의 인문학 등
  - 사업의 설계에 따라 마을이나 거리, 공원, 문화공간, 서울의 문화유산, 산업현장,



시장 등에서 다양하게 수행

예) 마을(혹은 시민) 기억유산사(아키비스트) 양성

### 과제3. 공유공간사업

#### ■ ‘마음 한 평’ 사업

- 집 앞이나 가게 앞, 아파트 창문틀 공간 공유사업

-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

예) “한 평 화단”, “한 평 갤러리”, “한 평 무대” “친절 베란다”, “골목 평상”, “Green wall 등

- 상업 및 업무 시설에서도 공유 공간 기부활동을 통해 공유 철학 확산

### 과제4. 문화정책의 의미화 사업

#### ■ 시민 컨퍼런스 운영

- 서울시민의 삶과 일상을 기억하고 재창조하는 시민 컨퍼런스 운영

#### ■ 문화정책의 가치를 담는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화 사업 확대

- 공원, 도서관, 거리, 대중교통, 미디어를 통해 문화정책의 가치를 의미화, 시각화, 디자인화 과정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공동체성 확장

예)



(그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예

## V.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

### 1. 정책방향 및 비전

#### 1) 접근방식의 설계

- 일상과 정책의 결합을 통해 거대 결론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 소소하고 작은 활동으로 세계가 변화한다는 믿음 갖기



(그림) 세계의 중심은 일상

#### 2) 토대를 위한 문화접근하기

- 마을 공동체성 재설계
  - 다양성이 배제된 마을의 삶은 강요이자 또 다른 억압으로 미래의 공동체성은 다양성을 담는 공동체성 지향.
  - 취향과 가치의 공동체의 확대는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환경이 될 것임.
- 공론 자체가 더 중요한 상호 소통 문화 확대
  - 결론이 있는 토론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때 관찰과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토론은 놀이가 됨.
  - 마을에서의 활동은 경쟁과 우위가 없는 놀이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놀이성은 배려(놀이에서 깎두기제도는 소수자와의 공존하는 방식)를 통해 가능. 또한 배려를 만드는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의사조정과정)은 중요한 마을에서의 태도생성과정.

- 마을을 위한 활동 아닌 나를 위한 활동으로 재인식
  - 집단을 위한 활동, 목적이 분명한 활동은 마을 활동의 피로감 축적
  - 마을은 스스로 즐기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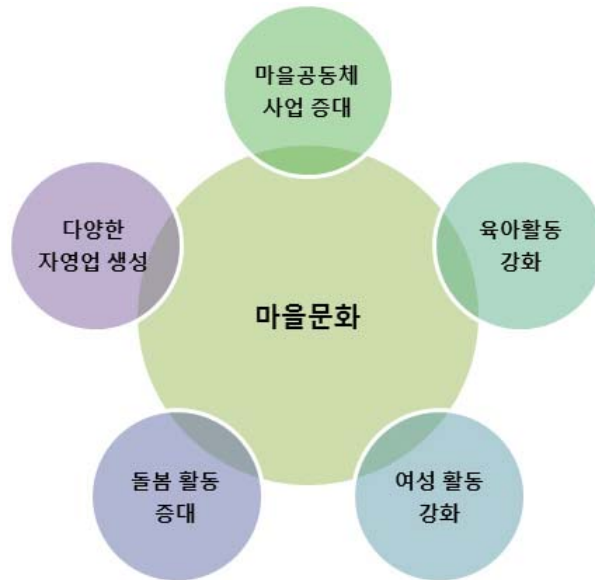
### 3) 미래비전

- 일상이 있는 대도시의 새로운 실험의 확대 구상과 어울리는 서울다운 마을 공동체 문화 확대
  - 과거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3도심- 5광역중심- 12지역중심- 다수의 지구 중심으로 설계되는 2030 서울플랜은 시스템과 일상, 전체와 부분의 상호활력을 만들 것임.
  - 따라서 각 마을공동체의 일상적 삶과 대도시 서울의 다양한 기회가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임.



(그림) 일상을 추동하는 서울로의 발전 전략

- 마을은 터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촉매요소를 통해 다양화 될 것임
  - 문화정책은 15년의 장기정책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상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마을문화야말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마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노인 및 아동의 공동체적 필요는 마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임. 수많은 촉매요소가 마을 활동과 직업 및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역할 증대와 새로운 종류의 자영업이 활성화 될 것임.



(그림) 미래의 마을문화의 중요지점

#### 4)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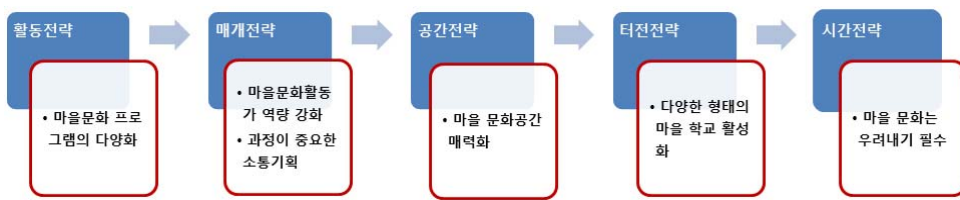
- 마을 문화사업의 내용과 질의 변화 측정
  - 사업의 증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과도 깊은 연관관계
  -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와 동기가 증대되었는가가 마을 문화 발전의 중요한 잣대
  - 또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확대와 그것의 성격은 일상성의 중요한 잣대
  
- 마을 문화의 시민적 역량 평가
  - 마을 학교, 프로그램 학교 등 다양한 학습과 공유의 터전 확대 측정
  -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실태 및 문화활동실태 조사
  
- 일상의 공동체성 조사
  -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활동 참여율 조사
  - 소외계층에 대한 개인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의식조사
  - 서울시민의 자살률 조사 및 지역별 자살률 변동실태

〈표〉 2006년~2012년 서울시 자살률 추이<sup>11)</sup> (단위 : 명 /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7.1	20.1	21.6	26.1	26.2	26.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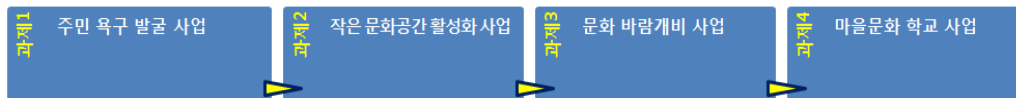
## 2.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 1)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그림)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전략

### 2) 주요 추진사업



(그림) 토대를 위한 문화정책 추진사업

#### 과제1. 주민 욕구 발굴 사업

##### ■ 마을 교과서 발굴 사업

- 마을의 장인을 찾아 시민공유 프로그램 개설
- 마을 주민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마을 학교 프로그램화
- 마을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 예술 활동 등을 발굴하여 일상, 골목, 동네, 마을을 변주하고 관계를 기획하는 훈련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마을교과서로 학교에서 마을을 공부하고 마을에서 체험

11)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중에서 2668명 자살을 하였음.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을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38명으로 가장 높았고 구로구 31.9명, 강북구 31.7명, 동대문구 31.3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 구는 2010년 한국 평균인 31.2명보다 자살률이 높았음.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구는 20.2명인 송파구였으며, 마포구 21.1명, 서초구 22명, 양천구 22.7명, 서대문구 23.6명 등의 순이었음.

■ 마을 스토리 문고 출판 지원 사업

- 마을 콘텐츠 발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콘텐츠를 마을 스토리 출판지원
- 문고를 작은 도서관이나 휴 카페, 북카페, 주민자치센터 등에 저자 사인과 함께 비치

■ 마을에 말 걸기 지원 사업

- 마을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후속 사업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서울시가 마을에 사업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촉진활동 수행
- 마을에서 사라졌지만 마을에서 비상업적으로 수행하면 좋은 활동으로 선정하여 지원
- 마을 밥상, 마을 식당, 마을 세탁소, 마을 목공소, 마을어르신돌봄센터

■ 공동체 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

- 마을활동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고 공공적 의미부여
- 사회공헌 평가지표에 마을활동지표 의무화

과제2.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24시간 마을 문화편의점 운영

- 마을 문화공간 (북카페나 휴카페 등) 중에서 24시간 마을 문화편의점을 지정
- 청소년, 1인 가구 주민 등 주민이 항시적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비공식 무정형 마을 작은 문화공간 지원 사업

- 개인 혹은 기업의 사적 공간 중에서 마을 문화 활동 공간으로 등록
- 등록된 문화공간은 마실터로 지정하여 현판을 걸고 마을 문화공간으로 활동
- 소액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마을의 일상적 마실 공간이며, 공론장으로 활용
- 취향과 가치에 따라 서예, 독서모임, 그림그리기, 음악감상, 영화보기 등 이웃과 편안한 커피 모임이 항시화하고 자연스러운 주민 모임장으로 활용
- 이웃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주민의 발굴 과정이며 주민 리더십 창출과정

과제3. 문화 바람개비 사업

■ 마을캠프 지원 사업

- 마을의 작은 공원이나 시장, 옥상 등에서 청소년 마을 캠프를 운영하고 마을 주민

이 길잡이 멘토 활동

- 세대 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캠프는 일상의 공간에서 상호 힐링하는 도심 속 캠프
- 마을 콘텐츠 발굴 내용과 결합되거나 일상 인문학이 있는 자리로 활용

■ 마을 리더 문화아카데미 지원 사업

- 마을의 다양한 리더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고, 일상의 창의성과 기획력을 높이는 과정
- 새로운 마을 리더 양성의 모델을 구상하고 프로그램 개발
- 시민예술가의 마을예술가 전환 지원 프로그램(마을레지던시) : 마을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전에 마을의 구성원으로 마을살이를 예술적 소재로 삼아 재현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마을문화기획자 지원 프로그램은 마을의 활력을 충전함

과제4. 마을문화 학교 사업

■ 마을학교운영

- 마을의 다양한 욕구를 집약하는 마을학교 사업을 설계하여 마을문화를 집약
- 마을학교는 정규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요구되며, 그것을 통해 마을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
- 마을학교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자체 동력을 활성화할 것임

■ 지역의 학습자원 활용

-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의 도서관, 체육관을 마을에 개방하도록 유도
-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매년 주민 친화 기업, 주민 친화 학교, 활용하는 마을 사업 확대
- 주민의 삶의 지혜를 사회화하는 프로그램 확대

## VI. 의제 발굴 과정 사진 모임



▲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



▲ 사전 및 현장접수대 운영



▲ 마을문화 개념 눈높이 맞추기



▲ 2030 문화계획 수립과정 설명



▲ 소셜픽션 컨퍼런스 원리와 규칙 설명



▲ 참가자 참여 테이블 선택





▲ 자유로운 분위기로 팀별 토론



▲ 예술 테이블 토론



▲ 어르신 테이블 토론



▲ 남성 테이블 발표



▲ 전문가 워크숍\_키워드 재정리

